

8월 16일(월) / 스 4-6

- ▶ **내용요약** : 에스라 4장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대적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가 거절을 당하자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후 5장에서 선지자 학개와 스가라의 예언과 격려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 그것을 본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과 동관들은 다리오 왕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6장에서 다리오 왕은 보물전각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은 후, 그 조서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건축을 허락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형통하게 진행되어 다리오 왕 제 육년에 완공되어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
- ▶ **질문** : 예언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던 선지자들은? (5장)
- ▶ **생각하기** :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사탄의 공격으로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8월 19일(목) / 느 5-7

- ▶ **내용요약** : 느헤미야 5장에서 극심한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다. 이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 일하는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한편 6장에서는 산발랏을 비롯한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끝마쳤다. 이어서 7장에서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문지기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세웠다.
- ▶ **질문** : 성벽 재건은 며칠 만에 완성되었는가? (6장)
- ▶ **생각하기** :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백성들과 고통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힘과 용기를 얻었고, 성벽과 도시 또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 말로만 하는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실천적 리더십과 겸손함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라)

8월 22일(일) / 예 8-10

- ▶ **내용요약** : 에스더 8장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 또한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모르드개에게 주었다. 이후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하여 유대인을 진멸하도록 한 조서를 철회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철회할 수 없었다. 이에 왕의 허락을 받은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한 모든 원수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조서를 전국에 보냈다. 이에 9장에서 유다 사람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완전히

8월 17일(화) / 스 7-10

- ▶ **내용요약** : 에스라 7장에서 학사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또한 에스라를 통해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지원하였다. 8장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돌아온 이들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후 9장에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 및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회개하였다. 이에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회개하며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실행하였다.
- ▶ **질문** :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은? (7장)
-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결단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다. 그의 슬픔은 곧 이스라엘의 슬픔이 되었고, 그의 회개는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추구하지 않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단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키심을 기억하자.

8월 20일(금) / 느 11-13

- ▶ **내용요약** : 느헤미야 11장에는 예루살렘과 주변 도시에 정착하여 거주했던 지방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2장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 봉헌했다. 이에 온 무리가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즐거워했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13장에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이어갔다. 그는 모세의 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준 후 이방인들을 신앙 공동체에서 분리했다. 또한 제사장 엘리아십이 하나님의 전 뜰에 도비야를 위해 방을 만들었음을 듣고 도비야의 세간을 내어 던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백성들을 교훈했다.
- ▶ **질문**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12장)
- ▶ **생각하기** :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열정이기도 했다.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이자 예배와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무관심할 때가 많다.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자. 온전치 못한 것이 있다면 던져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진멸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승리를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모르드개는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어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아달월 십사일과 십오일을 지키도록 규례를 세우게 했다. 우리들은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해마다 부림일로 기념하였다. 한편 10장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그의 본토와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으며, 모르드개를 높여 존귀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 왕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은 모르드개는 유대인 가운데 큰 존경을 받았으며, 민족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였다.

8월 18일(수) / 느 1-4

- ▶ **내용요약** : 느헤미야 1장에서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환난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후 2장에서 왕의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였다. 이후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한 것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중수가 본격화되었다. 그러자 4장에서 호른 사람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공사를 방해하고자 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함과 동시에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 ▶ **질문** :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한 사람은? (2-3장)
- ▶ **생각하기** : 환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했을 때,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처럼 우리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8월 21일(토) / 예 1-3

- ▶ **내용요약** : 에스더 1장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왕후 와스디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자 진노하여 왕후의 위를 폐했다. 이후 2장에서 아하수어로 왕은 새 왕후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 각 지방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았다. 한편 포로로 잡혀온 유다 사람 중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딸처럼 양육했던 에스더도 왕궁으로 끌려갔다. 이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출신과 종족을 말하지 못하게 했다. 아하수어로 왕은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더 에스더를 사랑하였고,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모르드개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되어 에스더를 통해 왕을 보호했다. 3장에서 하만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개에게 분노하였고 모든 유다 사람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 ▶ **질문** :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2장)
- ▶ **생각하기** :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어떤 책에서보다도 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

- ▶ **질문** :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은 날들을 기념하는 날은? (9장)
- ▶ **생각하기** : 하만은 스스로 교만해져서 유다 민족을 진멸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폐하시고 오히려 그의 집과 유다의 원수들을 심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뿐만 아니라 악인과 함께 일을 계획하거나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다. 악인의 계획을 멀리하자. 그리고 그것을 흠모하거나 동참하지 않도록 늘 은혜를 구하자.